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6년 2월 14일(토) 오전 11시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서울대학교 교가



1.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 - 념을 품 - 고
 2. 단 일 해 온 말을 쓰 - 고 조 - 용한 처 - 례



이 세 상 의 사 건 지 리 찾 - 고 이 길 을
 창 조 하 기 좋 아 하 - 고 명 석 한 머 리



최 초 하 게 나 아 가 - 는 젊 은 오 취 들
 색 무 화 와 색 생 명 을 이 부 어 가 며



이 처 례 와 이 나 라 의 크 나 은 보 람
 품 격 하 고 사 랑 하 - 는 우 리 의 조 구



위 의 나 는 인재 - 들 - 이 다 모 여 들 어



더 우 더 우 응 성 하 - 는 서 울 대 학 교
 수 누 리 옥 빛 을 내 - 는 서 울 대 학 교

제1부 정기총회

사회: 이영현 총무국장

오프닝 연주	와이난타
개회선언	사회자
애국가 제창	(선창: 김성봉) 다함께
교가 제창	(선창: 김성봉) 다함께
내빈소개	채규황회장
축사	유홍림총장
축사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 삼성 호암상 수상, KIST 원장
사업 보고	이영현 총무국장
재무 보고	최응환 재무국장
신임회장 및 차기회장 인준	채규황 동창회장
정기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채규황 동창회장
자폐돕기 신년음악회 기부금 전달	채규황 동창회장
감사패 수여	채규황 동창회장
이임 회장단 선물증정	채규황 동창회장
이임사	채규황 동창회장
동창회기 이양	이임회장 / 신임회장

사회: 송미선 신임 총무국장

이임회장 공로패 증정	양수진 신임회장/ 채규황 이임회장
신임회장 취임사	양수진 신임회장
외빈 소개	양수진 신임회장
단과대학 회장 소개	양수진 신임회장
신임 임원진 소개 및 감사 인준	양수진 신임회장
사업계획 보고	양수진 신임회장
차기회장 인사	이찬용 차기회장
후원해 주신 분	양수진 신임회장
단체사진 촬영	다함께 식사

제2부

사회: 이용 부총무

나이팅게일 크로마 하프팀	강정자, 김영희, 박정우, 장란희, 조성자
Jesu, Joy of Man's Desiring, 과수원 길	
클래식 기타	재미한인기타협회 (심재호, 양수진, 전세철, 제니퍼 김, 김우범)
Manha de Carnaval, by Luiz F. Bonfa	
Minuet from Orchestral Suite No.2, by J. S. Bach	
Una Limosna Por Amor de Dios, by Agustín Barrios MangoréSolo (제니퍼 김)	
Troubadour(김자성 & 원영배)	
Sound of Silence, 행복의 나라로	
아르모니아 싱어즈	김성봉, 채홍석, 이규영, 반주: 제갈소망
Because Song, Yesterday, Nessun Dorma	

축사

나눔으로 이어지는 동창회의 내일



김종섭(문리대 66)

서울대 총동창회장

오늘 퇴임하시는 채규황 회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동창회를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특히 한 달여 전 열린 자폐 어린이 돕기 음악회는 기획부터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감동할 만큼 알차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 가운데 무려 1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동문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동창회의 존재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 도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호흡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역시 동창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채 회장님께서 바로 이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 발자취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 취임하시는 양수진 회장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양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명석한 판단력과 함께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대 회관(가칭) 건립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이지만, 양 회장님이라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커뮤니티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역시 다음 달이면 총동창회장 직에서 물러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는 명예회장으로서 한 걸음 뒤에서 동창회를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가주 동창회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분하게도 양수진 회장님께서 저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해 주셨습니다. 큰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도 남가주 동창회를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남가주는 제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 역대 회장님들과 깊은 우정을 쌓아왔고, 지난 두 달여 동안 체류하며 많은 동문들을 직접 만나 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기간 중, 서울과 실리콘밸리, 남가주에서 온 젊은 동문들이 함께한 'SNU Global

Connect' 모임에 참석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동창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창회 역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더 넓은 연결과 도약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남가주 동문 여러분, 동창회는 바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손을 맞잡을 때, 우리의 동창회는 더 따뜻하고 더 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인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 기대



황효숙

미주동창회 회장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남가주 동문 여러분, 새해 정기총회 및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서울대 미주 동문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남가주 동창회를 이끌어갈 양수진 회장님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양 회장님의 "나에게 넌, 우리 사이 정들자" (You to Me, Let's Get Together)

라는 모토는 동창회가 '나의 자리를 너로 채우며 함께 우리가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양 회장님의 의지를 통해 남가주 동창회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미주 동문의 40%가 넘는 분들이 속한 곳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가주 동창회가 움직이는 방향은 때로는 미주 동문 사회 전체의 큰 흐름을 만들고 추진하는 활동에 따라 다른 지부들이 참고하는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남가주 회장의 역할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미주동창회와 함께 동문 공동체의 비전을 그려가는 중요한 책임을 지닙니다.

남가주 동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동창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지퍼홀에서 열린 남가주 동문합창단과 음대 동창회가 함께 만들어낸 무대는 동창회에서 피어나는 문화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악 50주년을 기념한 관악세대 갈라 행사는 '관악'이라는 공통의 기억이 세대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문화로 연결하고 세대로 연대한 이 두 행사는 동창회의 본질이 동문을 연결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세리토스에 개소한 동창회관은 남가주 동문들의 든든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남가주 동창회관은 동문들을 연결하는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공간적 토대이고, 남가주 동창회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터전입니다.

몇 주전 UC 어바인 캠퍼스에서 금난새 마에스트로가 지휘한 신년 나눔 음악회는 남가주 동창회의 지향점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 음악회는 동창회가 지역 사회에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헌신한 이 행보는 남가주 동창회가 펼쳐갈 선한 영향력의 예고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남가주 동창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 채규황 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다져 놓으신 조직의 기반과 동문들과 함께 일구어 낸 성과들은 새로운 집행부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주동창회는 남가주와 함께 걸겠습니다. 양수진 회장님이 이끄는 새로운 집행부의 활동이 미주 동문 사회 전체에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도록 미주동창회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 총회가 새로운 역사를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가주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임사

일복·인복·재물복으로 버텨낸 1년



채규황 (법대 69)

남가주 총동창회 50대 회장

1년전 처음 회장직을 맡을때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뒤돌아 보면 참으로 바쁘게 그러나 보람있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세가지 복을 타고 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복' '인복' '재물복'입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면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일복'이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LA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로 지역사회는 큰 피해를 입었고 우리 동문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동문께서 3단 Mattress 1,000여개를 흔쾌히 기증해 주셨고,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이재민들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폭우속에서 직접 대형 유출 트럭을 운전해 Mattress를 나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동창회가 내부 친목을 넘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Hollywood Bowl 행사 역시 처음 시도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SUV 차량까지 동원했습니다. '50대 동창회는 정말 일복이 터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지않은 준비였지만 역대 가장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해서 한여름밤의 낭만을 나눌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신년 나눔 음악회 또한 임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전 좌석 매진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둘째는 '인복'입니다. 임원진 한분 한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인복은 김종섭 한국 총동창회 회장님과의 인연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결단으로 세리토스에 동창회 사무실로 방 두칸을 선뜻 마련해 주시고 그랜드 피아노 까지 기꺼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재물복'입니다. 지난 1년간 모든 행사에서 적자가 난 행사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야유회 조차 후원이 이어졌고 구순을 맞은 선배님들께서는 오히려 '고맙다'며 큰 금액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옳은 일에 진실된 마음으로 희생을 하면 더 큰 보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일복' '인복' '재물복'이 한꺼번에 들어와 숨가쁘게 보낸 1년이었지만 저는 이 순간 순간이 값지고 의미있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취임사

전통의 자부심으로, 함께 도약하는 남가주 동문의 미래



양수진(간호대 80)
남가주 총동창회 51대 회장

존경하는 남가주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남가주 총동창회의 **2026년도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창회의 기틀을 닦아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모교 사랑을 실천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문 여러분,
우리는 고국을 떠나 이 먼 타국 땅 남가주에서 각자의 꿈을 일구며 살아오면서도, '서울대'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2026년 한 해, 저는 우리 동창회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동행(同行)'과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모토는 "우리사이 정들자" 입니다.
행복한 동창회, 돌보는 동창회, 동행하는 동창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여러 후원 활동을 통해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가주 동창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동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동창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우리 동창회는 비로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제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따뜻한 격려로 저와 집행부의 걸음에 힘을 실어주시시오. 남가주 하늘 아래 우리 동문들이 나누는 따뜻한 정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 80학번 동기모임 -

김성수(사회대) 김정우(공대)
김희경(사범대) 박경륜(공대)
박상호(치대, 샌디에고) 박준태(상대)
송호찬(공대) 유성숙(사범대)
이상대(농생대) 이상대(농생대, Bruce Lee)
이상호(사범대) 정명식(자연대)
최경석(사범대) 최응환(상대)
최재을(수의대) 황의준(경영대)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역대회장 (상임이사)

1974년 창립

초대	김기주 (문리대 46)*	21대	박병기 (공대 52)*	37대	서치원 (공대 69)
2,3,4대	오재인 (치대 31)*	22대	이명상 (문리 58)	38대	김상찬 (문리 65)
5,6대	김영기 (공대 51)*	23대	방석훈 (농생 55)	39대	이서희 (법대 70)
7,8대	이기준 (법대 54)	24대	오흥조 (치대 56)*	40대	박혜옥 (간호 69)
9대	정원훈 (상대 38)*	25대	서영석 (의대 55)*	41대	김병연 (공대 68)*
10대	차종환 (사대 54)	26대	이청광 (상대 61)	42대	성주경 (상대 68)
11대	권길상 (음대 46)*	27대	임낙균 (약대 64)	43대	강신용 (사대 73)
12대	오형원 (의대 53)*	28대	곽철 (법대 64)	44대	한귀희 (미대 68)
13대	박상길 (농생대 58)	29대	김건진 (문리 62)	45대	민일기 (약대 69)
14대	임종문 (약대 51)*	30대	김영 (수의 63)	46대	최용준 (수의 81)
15대	손수웅 (수의 60)*	31대	노명호 (공대 61)	47대	박제환 (문리 75)
16대	신보남 (미대 59)	32대	김동석 (음대 64)	48대	김경무 (공대 69)
17대	장동호 (공대 53)*	33대	김지영 (사대 69)	49대	임춘택 (상대 68)
18대	권혁창 (법대 57)	34대	제영혜 (생과 71)	50대	채규황 (법대 69)
19대	이병준 (상대 55)	35대	김은종 (상대 59)		*작고
20대	전희택 (의대 58)	36대	한종철 (치대 62)		

단과대별 회장 및 총동창회 부회장

단과대	2026 단과대학 회장			2026 단과대학별 총동창회 부회장		
간호대	장동옥	213-446-8615	donnaacu@aol.com	이종묘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공대	백사훈	310-721-1161	shpack1227@gmail.com	배재현	909-762-2220	baeccy@hotmail.com
농생대	이상호	714-323-9603	sp10bass@gmail.com	정병혁	562-505-1333	bennyheong@gmail.com
문리대	김종하	323-620-6712	chriskim@koreatimes.com	이경희	805-367-6033	iminusa@iminusa.net
미대	이명규	323-806-9871	bhong6240@gmail.com	이원식	714-321-4105	eundopa@gmail.com
법대	김선기	818-268-6040	stevesunkikim41@gmail.com	안재엽	213-533-6033	davidj_an@hotmail.com
사범대	신혜원	213-631-3773	lawhwshin@sbcglobal.net	김희경	310-971-0534	hellenkim1@gmail.com
상대	김기형	213-808-7860	mkim0131@gmail.com	최운화	213-268-9562	Jack.choi@quantumfa.com
생과대	나용화	650-799-8483	joyhwang99@gmail.com	김경숙	909-360-9178	wanjunhada@gmail.com
수의대	이용훈	626-374-1505	lyonleedvm@gmail.com	김용진	405-564-4008	veykim@gmail.com
약대	홍종화	818-689-0464	ronstin@att.net	김향자	858-692-5312	hyang1zah@gmail.com
음대	이현림	714-319-6886	hyunlim08@gmail.com	장진영	818-307-7059	jinyoungj@gmail.com
의대	김자성	213-210-4429	dr.jasungkim@gmail.com	차민영	213-480-7770	mincha2003@yahoo.com
치대	하선호	213-446-4796	seonhoha@gmail.com	이찬용	626-840-7274	drlee03@yahoo.com
대학원	김수지	949-426-0917	mrswheelerkim@gmail.com	윤수현	562-455-3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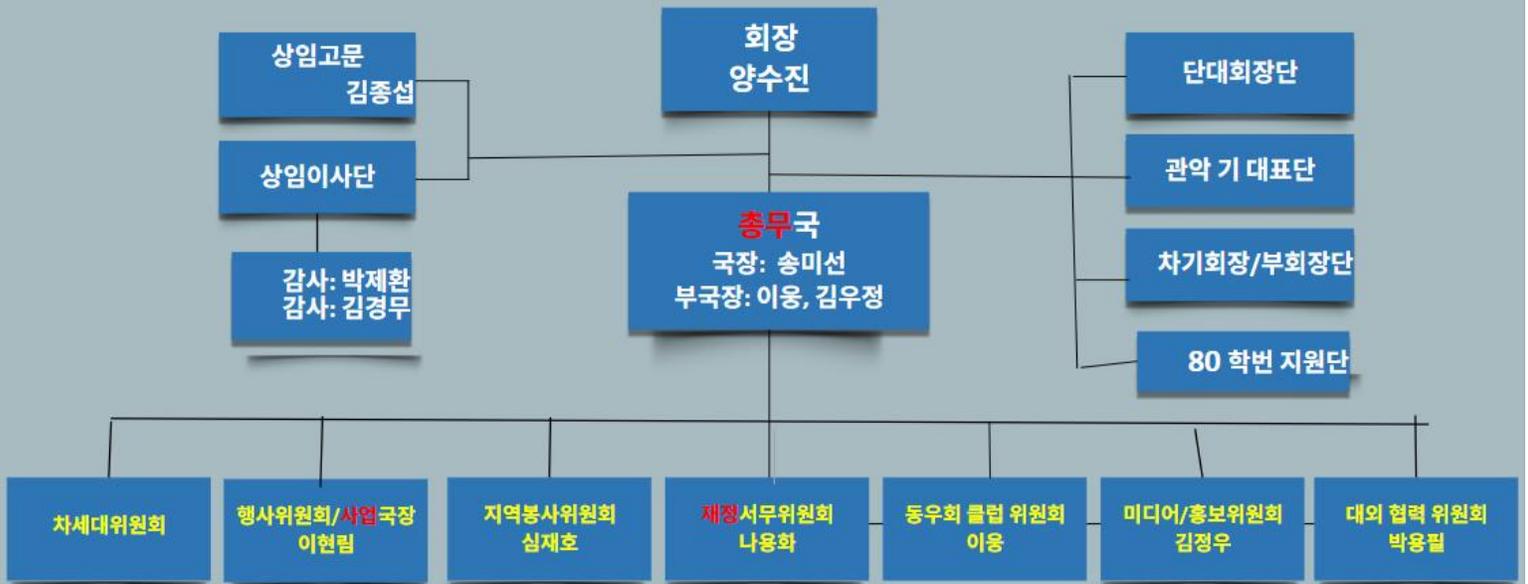
양수진 동문의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회장 장동옥

2026회장단 조직구성



[조직 구성 II]

축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취임식



IBM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글로벌 기업의 재무와
조직 운영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남가주
총동창회 재무국장으로서 섬기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재정, 투명한 운영,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튼튼한 동문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용화 (생과대 79)



멤버십 카드
지역 사랑방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

중점 사업

사업 계획	중점사업	월별	총동창회	대외 협력	동우활동지원	지역사회 협력
	>회원 카드	2월	신년총회(14일)	서울대 Innovation Ctr		
		3월	신임 행정팀 MT	서울대 천원 기부 지원		
	>시티 사랑방	4월	골프대회		골프	
		5월			피클 볼	
	> AMP	6월		미주평의회		MUSIC CAMP
		7월			탁구	
		8월	HB 음악회			ROBOT CAMP
		9월	바둑 대회	음대 /합창반공연	바둑	
		10월	야유회/구순잔치	서울대 홈커밍	하이킹	
		11월		미대 전시회		
		12월	후원자 만찬		자전거	
1월		신년 음악회 이사회	CES GC SNUISP			

양수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Taste the Excellence of Korea



대표 이승훈 (상대 74)



[f jayone.food](https://www.facebook.com/jayone.food)

[@jayonefoods](https://www.instagram.com/@jayonefoods)

[@Jayonetube](https://www.youtube.com/@Jayonetube)

Jayone Foods, Inc.

HQ Office: PARAMOUNT, CA 90723, UNITED STATES

info@jayone.com

[jayone.com](http://www.jayone.com)

Tel: 562-633-7400

Fax: 562-633-7401

2025 년도 재무 및 감사 보고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 동창회 재정보고서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잔액 (1/1/2025)		\$	64,290.46
	수입		
찬조(골드북)		\$	26,870.00
찬조(신년음악회)		\$	72,985.00
찬조(골프)		\$	18,600.00
찬조(헐리우드볼)		\$	20,170.00
찬조(피크닉)		\$	6,100.00
찬조(동창회 사무실)		\$	4,400.00
기타기부금		\$	1,500.00
총회회비		\$	22,932.00
동창회비		\$	10,410.00
이사회비			
회장	\$	5,000.00	
수석부회장	\$	2,000.00	
상임이사	\$	2,500.00	
선임이사	\$	2,200.00	
단대회장	\$	3,850.00	
단대부회장	\$	1,300.00	
		\$	16,850.00
수입계		\$	200,817.00
	지출		
골드북 경비		\$	52,124.53
신년음악회 경비		\$	47,925.30
1월 정기 이사회 경비		\$	4,621.22
2월 총회 경비		\$	37,151.26
골프 경비		\$	15,132.97
헐리우드볼 경비		\$	19,474.68
피크닉 경비		\$	6,749.77
광고비 경비		\$	674.00
기타 경비		\$	9,681.26
기타기부금		\$	5,840.28
동창회사무실 경비		\$	799.48
서울대 총장 초청 경비		\$	2,270.00
보험비		\$	746.47
감가상각 비용		\$	3,637.87
지출계		\$	206,829.09
순수입		\$	(6,012.09)
잔액(12/31/2025)		\$	58,278.37

위와 같이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재정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재무국장 최 응 환  2026년 1월 10일

위의 재정 보고서가 적절함을 감사 보고 드립니다.

감사 최 승 규  2026년 1월 10일

축 총동창회 회장 취임식

김진세·다니엘 김

DR. CHIN SE KIM, M.D.

DR. DANIEL R. KIM, M.D.

미국 내과 · 스포츠의학과 보드전문의

스포츠 부상 전문 치료병원 / 근골격계 통증, 신경통증 전문의
P.R.P. (자가혈청) Stem Cell(줄기세포) 치료

UNICARE SURGERY CENTER

Tennis Elbow 시술센터



- 관절, 골절, 척추수술
- 테니스 엘보우 수술
- 각종 통증 수술
- 안과 수술 전문의
(Dr. Grant Lee)
- 탈장·치질 수술 전문의
(Dr. Sang H. Choi, M.D.)
- Unicare Surgery Center
- Orthopedic/Podiatry/Plastic
- Hand & General Surgery
- Spine Surgery
- 각종 수술 상담

미국 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www.unicaresurgery.com

문의전화 **714-332-5000**

1741 W. Romneya Dr, #B, Ahaheim, CA 92801

문의전화 **714-520-0809**

1736 W. Medical Center Dr, #B, Anaheim, CA 92801

이현림 (음대 81)

축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S-Garden

한 귀 희

제44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미대 68

S - VILLAGE

1015 N.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29



S - GALLERY

5151 ROMAINE ST., LOS ANGELES, CA 90029 · S-Gallery@4swansea.org

미국에 3천만 달러 이상 자산이 있으십니까?

- 미국에
3000만 달러 자산이 있다

한국에 자산이 있으십니까?

- 집이 있다
- 건물이 있다
- 금융계좌나 투자자산이 있다
- 보험이 있다
- 사업체 또는 지분이 있다
- 상속 계획이 있다

김정운 간호대 90
Financial Representative
408-438-8895



장준 인문대 85
공인회계사
세금관련자문

세금과 상속 문제는,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한국 자산에 대한
상속·이전 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양수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어요!"



**미국내
어느 병원이든지
임원치료가 가능한
한인 유일의 메디컬 그룹**

- 최우수 등급 메디컬그룹
- 리퍼 2~3시간 내 가능
- 조기암 검진 및 예방 검진
- 한방, 물리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 각종 의료기구 혜택



센터 메디컬 그룹은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협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료하며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항상 노력을 다하고 있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메디컬 그룹입니다.

"HMO가 예전의 HMO가 아닙니다!!"
센터메디컬 그룹만의 특별한 메디케어 HMO

이미징센터, 내구성 의료장비
형각보조장비, 검사 서비스 등
수 많은 보조기관들도
Center IPA와 함께합니다.



213-226-8006

안우성 (의대 70)

축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취임식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Refrigeration Reinvented

Outstanding Reliability / Superior Functionality / Excellent Convenience



Turbo Air Group is a global commercial refrigeration manufacturer with 13 warehouse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7 factories located in U.S.A, Korea, China, and Vietnam. Our products are sold in 67 countries worldwide.

서치원

공대 69

제37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Eco-Friendly Turbo Air

Natural refrigerant is now used in all Turbo Air products.

Replaced Hydrocarbon Refrigerants (R-290/R-600a)
Decreased energy consumption by an average of 25%
Registered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 Energy Star

Patented Self-Cleaning Condenser

The 'Self-Cleaning Condenser' cleans the condenser with a rotating brush that moves up and down 2-3 times a day, preventing any dust build-up and making it possible to always maintain the highest efficiency while saving additional energy.



Let's Watch Turbo Air's
Self-Cleaning Condenser Video!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 Toll Free: 800-627-0032 | www.turboairinc.com



축 동창회장 취임식

Founder
Lee + RO Water
Infrastructure Engineers
<http://www.lee-r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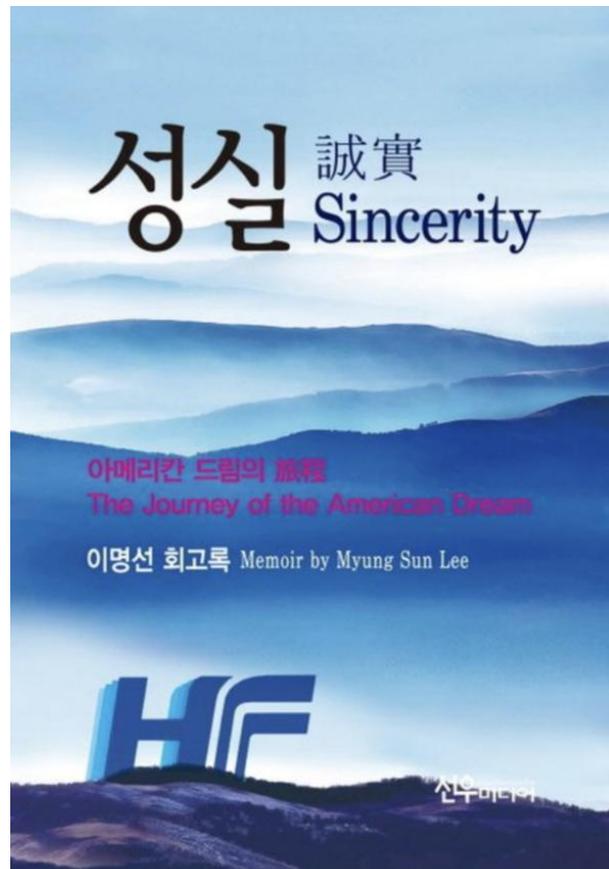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 제 16대 회장
남가주 총동창회 제 31대 회장

양수진 동문의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명선(상대 58)

Houston Fearless 76 인수
캘리포니아주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PGA, LPGA 마셜
자서전 '성실' 출간





GSK LLP 강호석 회계사

(상대 81, 전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213-380-5060
(Los Angeles)
714-530-3630
(Garden Grove)

INDEXED ANNUITY

- 시장 하락 시 원금 보호
- 지수 연동 수익 기회
- 평생 소득 옵션
- Tax-Deferred Growth
- 다양한 보너스 지급

 아메리츠파이낸셜
ALLMERITS FINANCIAL



Chris Kim & Lois Kim
(송미선, 음대 89학번)

14%에서 최대 20%의 보너스 지급 상품

5년간 불입금의 11% 보너스 지급 상품

213-500-0841

Annuity / 부동산 / 401K Rollover / IRA / SEP IRA / 생명 보험 / 롱텀 케어 / 암보험 / 메디케어

2026 서울 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을 축하합니다.

최운화

경영대 78

QUANTUM F&A LLC



**양수진 동문의
회장취임을 축하합니다**

하기환

공대 66

한남체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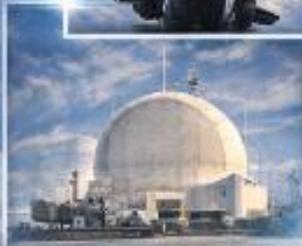
**2026 서울 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민일기

제45대 총동창회장 (약대 69)



Proven Performance since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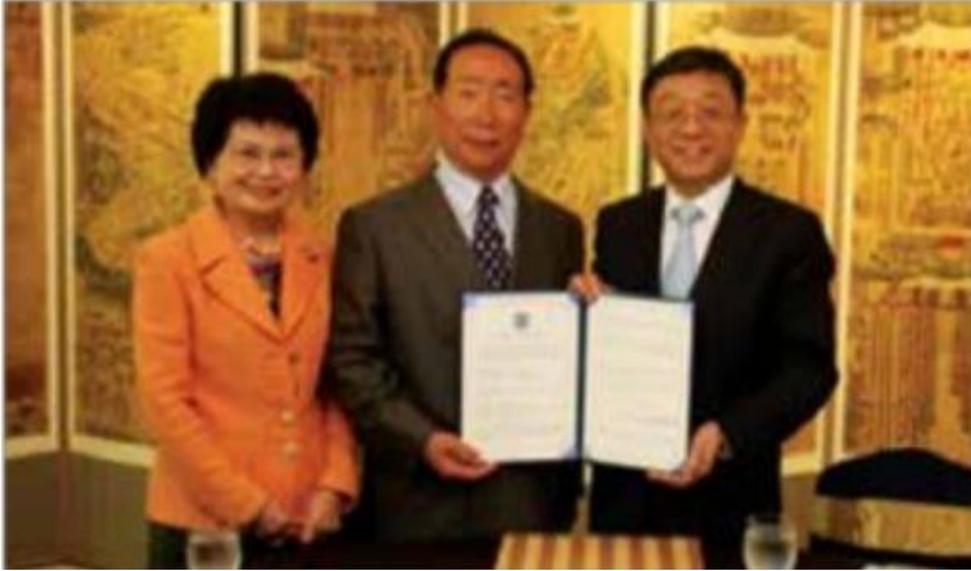


DR. JAY CHUNG
"Superman"

Aerospace & Defense Solutions

정재훈(공대 64)

양수진 동문의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박종수

수의대 58, 서울대 발전 공로상 (2025)



**2026 서울 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창신
법대 57**

양수진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LA 한인타운의 한 한식당에 60여 명의 동문들이 모였다. 생일을 맞아 마련된 자리였지만, 참석 인원만큼은 웬만한 동창회 행사 못지않았다. 그 주인공은 임낙균(약대 64·사진)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60년대 학번으로는 처음이자 최연소 회장을 지낸 분이다. 그날의 초대장은 조금 낡달랐다. "화환이나 축의금은 절대 사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대신 돌아가실 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답부에 혹시나 싶어 불무를 켜 겨간 사람들도 막상 현장을 보고는 머쓱해졌다. 임 동문은 평소 자신을 '쓰죽회'골수 회원이라고 소개한다. '쓰고 죽자'의 줄임말로, 주변에서는 그를 '쓰 회장'이라 부른다. 그는 실제로 매년 1만 달러씩을 모교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더 살면 10만 달러, 20년 더 살면 20만 달러가 추가로 모교에 간다"는 그의 말에는 기부가 아니라 '삶의 계획'이 담겨 있다.

'쓰죽회'를 영어로 옮기면 'Die Broke'.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죽는다'는 뜻이다. 25년 전 미국에서 한 재무설계사가 이와 같은 제목의 책을 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8주 동안 오르며, 돈의 쓰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책이었다.

저자는 스티븐 폴란(Stephen Pollan). 부동산 개발과 벤처 투자로 큰돈을 벌었던 그는 어느 날 말기 폐암 진단을 받는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해

쓰고 떠나는 삶의 미학

정작 써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젠장, 뭐 이런 삶이 다 있어.'

그런데 뜻밖에 반전이 일어났다. 세컨드 오피니언 결과 '오진'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였다. 그 경험이 바로 '다이브로크'라는 개념을 낳았다.

사실 이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채산스러운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도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다이브로크'는 그보다 한층 적극적이다. 아차피 빈손으로 갈 인생이라면, 미련 없이 쓰고 가라는 뜻이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 최고 부자들도 이미 '다이브로크'를 실천 중이다. 두 사람은 사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비영리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결국 그들의 부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남는다.

요즘 들어 '쓰고 죽자'는 철학에 공감하는 7080세대들이 늘고 있다. '쓰죽

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어 평생 쌓은 재산과 재능을 나누며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쓰는 것'은 단지 돈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일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삶의 방식이다.

12월은 송년 모임이 줄을 잇는 계절이다.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물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함께 웃고 나눌 친구와 가족, 그리고 신뢰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자린고비나 스쿠무지라는 딱지가 붙는다면 누가 걸을 내어주겠는가.

돈은 결국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다. 번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평생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낙균 동문은 그것을 이미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다이브로크'는 단순한 제테크 철학이 아니라, 나눔으로 완성되는 인생의 품격이다.

임낙균

제 27대 총동창회장 (약대 64)

임항균

서기회 회장 (사대 74)



- \$5,000+ 간호대 동창회
- \$4,000+ 관악세대
- \$1,000+ 나용화 서치원 안우성 양수진 염동해 이승훈 이찬용
이현림 임낙균 정재훈 한귀희 홍성선 80학번 동기 소망 소사이어티
- \$500+ 김정운 노명호 이명선 장준 박종수 하기환 서울대 발전기금
- \$300+ 송미선 강호석 최운화
- \$200+ 김성환 백만일 백혜옥 안혜정 간호대 공대. 농생대 문리대 미대
법대 사대 상대 생과대 수의대 약대 음대 의대 치대 대학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서울대 공동체의 희망이 됩니다.

양수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관악세대는 1975년 모교의 관악캠퍼스 이전 이후 입학한 동문들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100여 명의 관악세대 동문들이 이 자리에 모여 연대와 화합의 뜻을 다졌습니다. 저희 관악세대는 동창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관악세대 일동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서울대 기부 문의

Los Angeles

213-435-1974 america@snu.ac.kr

New Jersey

212-768-9144 michelle@klcpagroup.com

Seoul

011-822-871-8004 snuf@snu.ac.kr